



지난 9월3일에 이어 21일 다시 평양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박4일간 7대 종교지도자들과 남북평화와 민족화해의 행보를 계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1일 공향에 마중 나온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과 인사(왼쪽)를 나누는데 이어 조불련 법당에서 예불(가운데)을 올렸다. 오른쪽 사진은 21일 7대 종단 지도자와 실무진들의 평양공향 기념촬영.

# “종교지도자, 남북평화통일 위해 기여”

## 화보 7대 종단 지도자 방북 현장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남북교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7대 종단 종교인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9월2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해 북측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남북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협력의 자리를 가졌다. 평양공향 도착에서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종교인 대화’, 북측 종교시설 방문 등 3박4일 일정 가운데 주요행사를 사진으로 소개한다.

## “통일은 승패 문제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으로 풀어가야”

### 기고 정인성 KCRP 남북교류위원장



지난 2월 7개 종단 수장들께서 현재 정치권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북녘동포들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 우리 종교인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풀어가자고 모두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성사가 될까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7개 종단의 공동회장단인 수장들은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만나면서 끊임 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한 번 결심한 내용을 어려운 남북정세 속에서도 인내

와 정성으로 풀어가시는 모습에 실무자인 저로서도 많은 게 우침을 받았습니다. 방북날짜가 9월21일부터 24일까지로 결정되고 15일에는 개성에서 북한에서의 일정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대종단수장단이 북의 최고지도자를 만나러 방북한다는 최초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 연이은 같은 맥락의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북 직전 악재 중의 악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즉시 북으로 우리의 취지와 무관한 과도한

보도라는 점을 알렸고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각 언론사에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북에서는 우리 쪽의 과도한 언론보도로 이번 남북종교인교류를 취소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것을 방북 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21일 평양순안공향에 도착하고서야 방북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방북 기간 내내 북측은 우리 대표단을 예상 밖의 환대와 예우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대표단 전원이 평양 공향 귀빈실을 통해서 입국하였고, 방북기간에 이동할 때에는 평양 시내 교통을 통제해 가운데 멈춤 없이 이동하는 편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수장단 숙소 역시 모란봉 초대소에 머물렀고 종교관계자가 아

닌 북측의 고위층들이 대표단을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공식적인 북측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종혁 아시아조선평화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나 격의 없이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6·15공동선언에 바탕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융통성 있게 남북관계를 풀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장님들은 신뢰를 깰만한 어떤 행위도 서로 삼가고 어려운 문제 일수록 상호 편히 마주 앉아서 풀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온도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에 관한 이기고 지는 문제로 풀지 말고 공존과 상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두산에서의 평화통일기도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날씨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에 돌연이도 불어날한다는 백두산의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나서 대표단 모두와 북측 대표단이 손에 손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목청껏 부를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례화하기로 한 남북 종교인 교류를 잘 가다듬어 구체화 해나가는 일입니다.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측과 공존 상생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포교사단 팔재계수계실천대회에 참석한 포교원장 혜총스님(오른쪽)이 신규포교사에게 단복을 전달하고 있다.

와 교수로 나서 포교사들에게 팔재계와 보살계를 설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오늘 포교사 품수를 받은 신규포교사와 전문포교사 모두 축하한다”며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했는데 포교사가 된 여러분은 지중한 인연을 생각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는 (금강경) 독경정진 및 쑥불행진, 보살계 수계식과 선본사 갓바위 약사여래 참배를 끝으로 회향했다. 임희웅 단장은 “팔재계와 보살계를 수지한 포교사들이 부처님 법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으로 포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는 첫 10년사를 발간한 만큼 이를 거울삼아 앞찬 20년사, 100년사를 쓸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이날 법회에서 지난 10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포교사단 10년사> 봉정식도 봉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포교사단 10년사>에는 포교사단 소개 및 연도별 주요활동과 사진이 수록돼 있다. 또 지난 4월 전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스님(전 포교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 정병스님, 임희웅 단장과 김기병 초대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포교사단 11년 기념 좌담회 내용도 담겨 있다.

동화사=어현경 기자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 봉 고달사 元宗國師 및 禪師 다례재 행



보물 제7호 원종대사 혜진탑.

모시는 글

고려국사 원종대사의 열반 1052주기를 맞이하여 불도의 뜻을 모아 다례재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_ 2011년 10월 9일(음력 9월13일) 오전11시
- 장 소 \_ 고달사

※ 문화재 지킴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 보물 제6호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7호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보물 제8호 고달사지 석불좌)

※매월 2째주 금요일 저녁 다라니독송철야기도법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전화 031)884-2922

대한불교조계종 2교구 고달사 주지 도운 합장

### 원종국사 행장

신라 헌강왕8년(882) 13세, 고달원 종선화상에게 출가 / 진성여왕5년(891)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 수지 / 892년 중국 대동 투자회상의 법을 계승 / 입국 후 고려 태조의 초청으로 광주 천왕사에서 불법을 강론 / 구산선종 중 봉림산문의 종홍 / 태조가 하남의와 좌구를 하사, 혜종·정종·광종은 윤남가사와 마남법의 보내 스님의 법을 널리 알리도록함 / 광종은 증진대사의 호와 국사로 추대 / 고달원에서 광종9년 정좌입적 / 시호는 원종국사, 탑호는 혜진 / 광종은 스님의 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달원, 희양원, 도봉원 등 부동선원의 지위를 교지로 내림